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양상과 공동체의식의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

백승희** · 정혜원***

초 록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적 변화양상에서 이질적인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각 잠재계층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시점별로 탐색한 후,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적 변화양상을 통해 도출된 잠재계층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변화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1 패널 데이터 2차년도(중2)부터 6차년도(고3)까지인 5년 동안의 자료 1,886명(남학생 924명, 여학생 962명)을 대상으로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확인하였으며, 다집단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잠재계층별 종단적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다문화수용성 발달적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한 결과 ‘증가집단’, ‘유지집단’, ‘감소집단’ 3개의 이질적인 계층으로 구분되었으며, 3개의 잠재계층을 결정하는 예측요인을 알아본 결과 개인요인인 해외방문경험, 가정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학대), 학교요인인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계층을 구분하는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잠재계층별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증가집단이 초기치가 가장 높았으며, 변화율에서는 증가집단과 유지집단이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성장혼합모형, 다집단 성장모형, 다문화수용성, 공동체의식

* 이 논문은 제 6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chw7@cn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이나 재외동포, 외국 유학생 등 외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민족·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다문화수용성을 함양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사회적·교육적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김종학, 최보영, 2014; 이자형, 김경근, 2013).

2016년 3월 여성가족부는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67.63점으로 다소 수용적으로 나타났다지만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함께 한국 사회에서 조화롭게 어울려나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즉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 변인들을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랑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서봉언, 2015). 다양한 민족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은 서로의 결속을 다지고 상호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의 일환으로 다양한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McMillan과 Chavis (1986)에 따르면,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자신들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

구가 함께 하는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그리고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혹은 헌신과 같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동체의식은 집단의 단일성 내지 동일성을 강조하지만, 다문화수용성은 집단 내 차이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다원성이나 다양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현상이 사회나 국가 공동체의 연대성 강화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공동체 내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곽준혁, 2007). Sandal(2008)은 다양한 인종·민족이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은 상호작용적 관계라고 말한 바 있는데,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의식과 타민족에 대한 수용성은 사회통합의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서봉언, 조현미, 김민영, 2015). 서봉언 외(2015)는 다문화수용성이 공동체의식 함양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직·간접적으로 교우관계 및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향후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있어서 다문화 수용능력과 공동체의식은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동체의식 함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실태의 경우, 학교급, 거주지역, 성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거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정확한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박가나, 2009).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면서 혼돈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의 형성은 또래들과의 문화를 통해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정체감 및 인간관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류영아, 2007), 이 시기에 형성된 타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수용은 청년기, 성인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Ellison & Powers, 1994).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성별, 친구 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도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근, 황여정, 2012). 또한 외국 여행 혹은 방문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다문화수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구인임프

로 종단적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종단연구는 보다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사용하여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발달양상에서 이질적인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같은 연령의 학생일지라도 모든 학생들이 동질적 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임성애, 이은주, 2016), Moffit(1993), Reid와 Patterson (1989)과 같은 유형학 이론가들은 특정 성취발달 수준을 보이는 집단도 이질적인 하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집단별로 관련된 고유의 원인 요인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 할 때, 유형화 연구를 통해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발달양상이 어떻게 경험적으로 분류되는지, 유형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유형화를 통해 각 집단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조아미, 신택수, 2012).

또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형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Lerner(1991)는 청소년을 이해함에 있어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심리적 특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발달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에 대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이에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적 양상에 대한 잠재집단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요인(성별, 봉사활동 참여 유무, 해외방문 경험 유무), 가정요인(부모양육태도), 학교요인(교우관계, 교사관계)으로 분류하여 잠재집단 구성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성별, 봉사활동 참여 유무, 해외방문 경험 유무, 부모양육태도,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계층 구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수용성의 잠재계층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다집단 성장모형(GMM with Known Class)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종단연구는 공동체의식의 변화를 잠재계층별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1 패널 데이터 2차(중2)~6차(고3)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발달양상에서의 잠재계층을 검증하고 계층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양상을 통해 도출된 잠재계층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변화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적 변화 양상에 따라 몇 개의 잠재계층이 존재하며, 그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적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은 어느 시점, 어떤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 연구문제 3.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적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별,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은 서로 다른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설명되거나(윤인진, 송영호, 2011),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로 정의되기도 한다(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즉, 다문화수용성이란 ‘문화적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박명희, 2013;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선보영, 이명진, 2012; 하경애, 2010; Chen & Starosta, 2000). 또한 다문화수용성은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과 어느 정도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회적 거리를

의미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개념은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타문화권의 사람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의 공존가능성을 나타내는 행동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행동적 요인에서는 더 나아가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자신과 가까운 내집단으로 수용하는 수준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개념은 한 사회문화 안에서 다른 사회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을 포함하며, 다른 문화나 생각에 대한 개방과 다른 문화에의 노출에 근거할 수 있다(Giles & Sherman, 1982).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양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했다거나 감소 또는 차이가 없었다는 등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장은화, 어주경, 2013). 박선희(2014)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종단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다문화수용성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감소의 변화폭이 가장 컸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학년 변화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김미진, 2010; 양계민, 2009; 이정우, 2008).

2. 다문화수용성을 예측하는 요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의 주요 요인으로는 성별을 들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는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경근, 황여정, 2012; 양계민, 2009; 윤상우, 김상돈, 2010). 성별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보고 되기도 하였다(김경근, 황여정, 2012; 이정우, 2008).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경근, 황여정, 2012; 이정우, 2008)가 있는가 하면, 남학생이 다문화수용성을 더 의미 있게 인식하는 결과(윤인진, 송영호, 2011)를 보인 연구가 있었다.

다음으로 해외방문경험 또한 다문화수용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장은화, 어주경, 2013; 진영은, 김영순, 2013).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체험과 경험, 즉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사회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Campbell, 2010). 그리고 봉사활동 참여 경험도 다문화수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yler, 2002). 다수의 연구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강가영, 장유미, 2013; 송미영, 2010).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단순한 해외거주 경험이나 접촉 빈도는 다문화수용성과 무관하거나 접촉 경험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자형, 박현준, 김경근, 2014; 심우엽, 2010).

다음으로 가정요인인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은 김경근과 황여정(2012)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설은정과 정옥분의 연구(2012)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부모가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아동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가 허용적, 방임적 양육태도를 보이거나 제재적,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중학생 이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전무했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변인에는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들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학교나 밖에서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또래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진다(주은지, 2010; Nelis & Rae, 2009). 서봉연 외(2015)는 교우,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수경(2015)은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율에는 교우관계나 교사관계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3. 다문화수용성에 따른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주의에 기반하여 각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동체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으며,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은 미래 건강한 시민을 배양하는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갖고 있는 요소이므로, 단순히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문화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폭 넓은 타 문화에 대한 수용력을 키울 수 있게 일관된 교육과정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의 결속력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성인기의 시민성과 사회참여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비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공동체의식의 확립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소연, 2016).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의 인과관계는 다문화수용성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등 연구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박혜숙, 원미순, 2010; 이자형, 김경근, 2013). 따라서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소연(2016)은 다문화수용성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며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육성을 위하여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수경(2015)은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의 영향 관계에 있어 일방향적으로, 즉 이전 시점에 형성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이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데에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적 관계 보다는 다문화수용성이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신중히 유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식 발달을 강화하는 변인으로서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 동안의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발달양상에 있어서의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그 잠재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발달양상에서 도출된 잠재계층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 추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KCYPS)의 중학교 1학년 패널의 2차년도에서 6차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011년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부터 2015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시점까지인 5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0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은 2,351명이었으나, 각 요인들의 결측치를 완전제거(listwise) 방식으로 제거한 후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전체의 약 80%인 1,886명(남학생 924명, 여학생 962명)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양상을 살펴보고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변인(성별, 봉사활동 참여 경험, 해외방문 경험), 가정변인(부모양육방식), 학교변인(교우관계, 교사관계)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더불어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발달양상에서 도출된 잠재계층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 추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문화수용성은 5차년도에 걸쳐 모두 5문항씩을 사용하였다. 이는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4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양상을 예측하는 개인변인으로 성별, 봉사활동 참여 유무, 해외방문 경험 유무를 사용하였으며, 가정변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방임, 학대)를 사용하였다. 방임, 학대 각각 4문항이었으나 전체문항과 상관이 낮은 각 1문항씩(다른 일 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을 제외하고 3문항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는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4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방임적으로 대하거나 학대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변인은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사용하였으며, 교우관계는 5문항이었으나 전체문항과 상관이 낮은 1문항(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을 제외하고 4문항을 사용하였다. 채점방식은 ‘매우 그렇다’에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4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표 1
측정도구

변인명	문항내용	신뢰도					
		2차	3차	4차	5차	6차	
종속 변인 1 다문화 수용성	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844	.864	.853	.862	.860	
	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5.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종속 변인 2 공동체의식	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774	.815	.756	.743	.733	
	3.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4.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성별	남=1, 여=0					-	
개인 변인	봉사 활동	유=1, 무=0					-
	해외 경험	유=1, 무=0					-
가정 변인 (방입)	부모 양육 방식	1.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 보신다	.799	.802	.729	.766	.727
		2.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에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3.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변인명	문항내용	신뢰도					
		2차	3차	4차	5차	6차	
부모 양육 방식 (학대)	1.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2.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3.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예: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	.865	.875	.859	.858	.879	
교우 관계	1.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2.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 한다 3.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4.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말을 잘 따라준다	.686	.698	.697	.675	.701	
학교 변인	교사 관계	1.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다 2.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하다 3.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4.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5.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835	.841	.813	.795	.849

3. 연구방법

1) 다문화수용성 발달적 변화양상에 대한 잠재계층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적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장혼합모형(GM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형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종단연구에 접목한 것으로 다중그룹성장모형(multiple group growth modeling; MGGM)과 유한혼합모형(finite mixture modeling)을 바탕으로 발전한 모형분석기법이다(조아미, 신태수, 2012).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와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적합도 지수, Entropy지수, 그리고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활용하여 계층의 실제적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AIC와 BIC는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며, Entropy는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나타낸다. BLRT는 k(대립가설)의 지지 여

부($k-1$ (영가설)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p 값을 제공한다. $p < .05$ 일 때 k 를 지지한다 (Muthén & Muthén, 2000). 이를 위하여 Mplus 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다문화수용성의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 예측

시점 및 다문화수용성의 발달 양상에서 밝혀진 잠재계층을 구분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SPSS 22.0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수 확인 및 잠재계층 구분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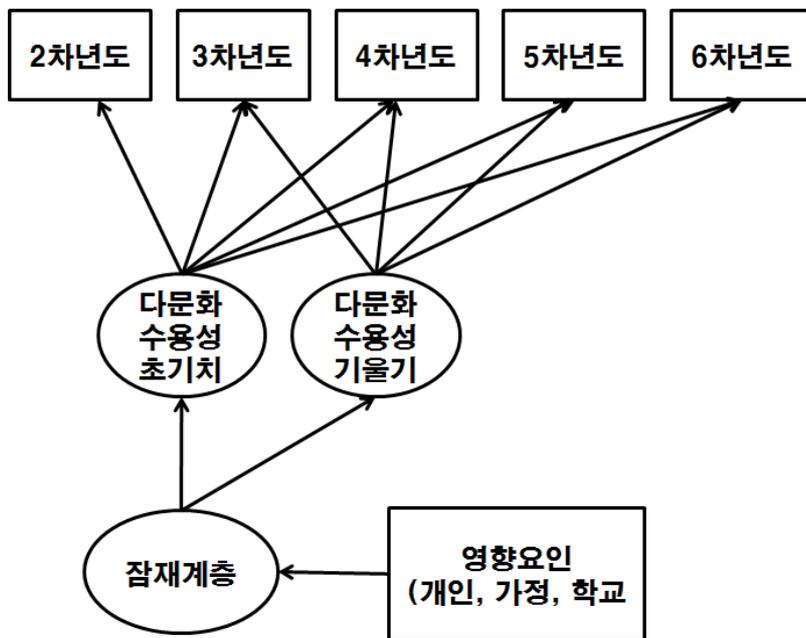


그림 1.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

3) 다문화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계층별 공동체의식의 변화

다문화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라 결정된 잠재계층별로 공동체의식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이용한 성장모형(growth model with known class; multiple group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유의미하게 구분된 잠재계층별로 공동체의식 발달양상에 대해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평균초기치와 평균선형변화율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이 도식화 하였으며, 분석을 위하여 Mplus 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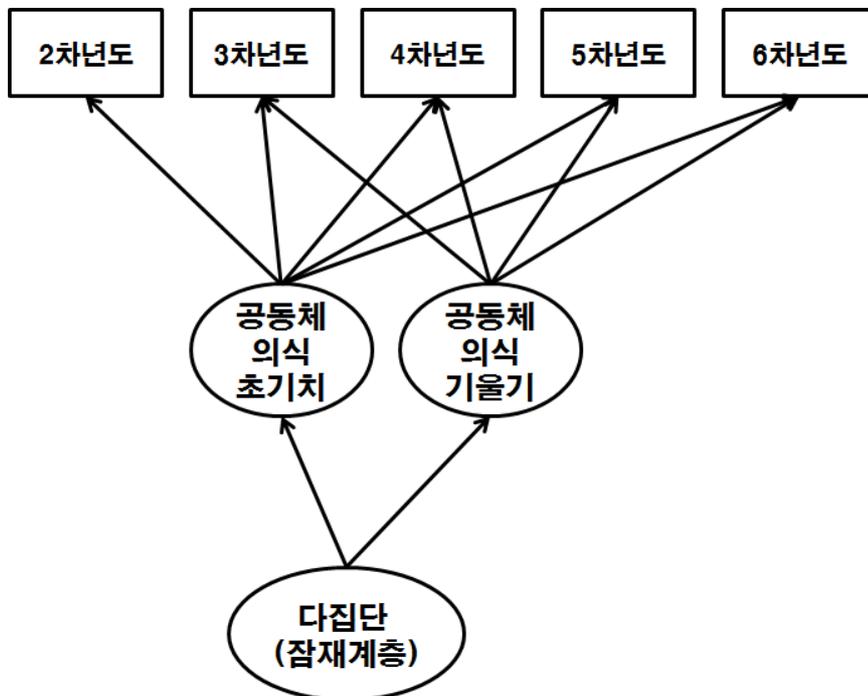


그림 2. 다집단(잠재계층) 성장모형(GMM with Known Class)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잠재계층을 구분하는 요인인 다문화수용성과, 이 잠재계층 구분을 예측하는 가정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학대), 학교요인인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른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공동체의식의 초기 시점에 해당하는 2차년도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는 표 2와 같으며, 2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의 구체적인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학대 2차년도와 다문화수용성, 공동체의식, 교사관계 2차년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요인들의 공차(Tolerance)가 .498~.772 분산팽창계수(VIF)가 1.295~2.007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다문화수용성 2차년도	공동체의식 2차년도	부모방임 2차년도	부모학대 2차년도	교우관계 2차년도	교사관계 2차년도
공동체의식 2차년도	.467***					
부모방임 2차년도	.211***	.258***				
부모학대 2차년도	.033	.021	-.156***			
교우관계 2차년도	.259***	.331***	.276***	-.066**		
교사관계 2차년도	.277***	.380***	.255***	-.007	.400***	
<i>M</i>	2.791	2.716	3.188	1.689	3.063	2.809
<i>SD</i>	.616	.595	.594	.760	.473	.662
왜도	-.089	-.129	-.555	1.104	-0.233	-.162
첨도	.441	.515	.750	.613	.905	-.109

** $p < .01$, *** $p < .001$

2. 다문화수용성 발달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의 구분

앞서 언급한 준거 기준에 따라 잠재계층 수에 대한 결정을 위해 다문화수용성을 시간적 변화에 따라 1차항과 시점 변수를 제공한 가속도항(2차항)을 투입하여 분석할 경우, 1차항과 2차항의 상관계수가 -0.928 로 큰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예상되어 선형 성장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AIC, sBIC값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BIC값은 3계층에서 감소하다가 4계층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Entropy값은 3계층이 가장 높았다. 반면 BLRT($p < .001$)는 모든 계층에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3계층이 잠재계층을 구성하는 비율이 적절하고,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의 용이성 측면에서도 3개 집단이 모두 잘 구분되어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모든 기준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한 3계층(Log Likelihood= -7055.903 , AIC= 14143.806 , BIC= 14232.481 , Entropy= $.837$, BLRT($p < .001$))잠재 집단이며, 결정된 잠재계층 모형의 분류를 평가하기 위해 평균 사후확률을 분석한 결과, 3개 계층의 평균사후확률 범위가 $.852 \sim .937$ 로 사후확률이 1.0에 가까운 높은 분류정확도를 보였다.

표 3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 지수

	2계층	3계층	4계층
log-L	-7112.254	-7055.903	-7047.163
df	13	16	19
AIC	14250.507	14143.806	14132.327
BIC	14322.556	14232.481	14237.629
sBIC	14281.255	14181.649	14177.266
Entropy	0.642	0.837	0.799
BLRT(p -value)	$< .001$	$< .001$	$< .001$
1계층(%)	591(31.3)	1,217(64.5)	97(5.1)
2계층(%)	1,295(68.7)	570(30.2)	503(26.7)
3계층(%)		99(5.2)	53(2.8)
4계층(%)			1,233(65.4)

최종적으로 선정된 3개의 잠재계층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계층 1은 전체의 64.5%인 1,217명으로 가장 많은 사례수를 가지며 2차년도 시점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차년도 시점에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크게 변화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이 계층을 ‘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2는 전체의 30.2%인 570명의 사례수를 가지며 다문화수용성이 2차년도 시점에서 가장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가지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 계층을 ‘증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은 전체의 5.2%인 99명으로 가장 작은 사례수를 가지며, 2차년도 시점에서 다문화수용성이 가장 낮았으며 6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이 계층은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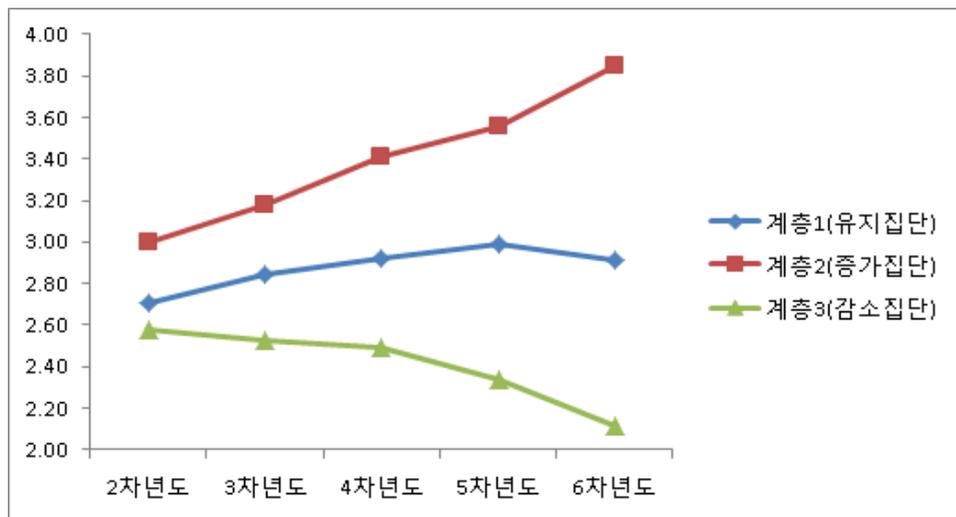


그림 3.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적 변화양상

3.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요인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양상에 따라 확인된 3개의 잠재계층을 구분하는데 있어 언제(시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예측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후 비교집단과 비교하는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요인으로 유의한 시점과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표 4에 제시된 추정치는 준거 집단에 비해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을 의미한다.

각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별 특징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수록 유지집단에 비해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2배($\exp(.213)=1.237$) 높았으며, 자녀를 학대할 경우에는 증가집단보다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0.8배($\exp(-.168) = .845$) 높았다. 그리고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3배($\exp (.243)=1.275$) 높았다.

중학교 3학년 때에도 부모가 학대를 할수록 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9배($\exp (-.156)=.855$) 정도였으며,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증가집단에 속할 확률이 1.8배($\exp (.595)=1.814$) 높았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유지집단보다 증가집단 속할 가능성이 1.3배($\exp(.285)=1.330$) 높게 나타났으며, 증가집단보다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0.6배($\exp(-.522)=.593$) 낮게 나타났다.

4차년도 시점인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방식과 교우관계가 계층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방임적으로 양육할 때 유지집단에 비해 증가집단에 속할 확률이 1.3배($\exp(.271)=1.311$),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2.1 배($\exp(.757)=2.133$) 높았다. 또한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감소집단보다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5배($\exp(-.733)=.481$) 높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해외방문을 경험한 학생은 증가집단보다 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6배($\exp(-.409)=.664$)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부모가 방임적일 때, 교우관계와 교사 관계가 좋을 때 유지집단보다 증가집단에 속할 확률이 1.6배($\exp(.470)=1.600$), 2.5배 ($\exp(.923)=2.517$), 1.3배($\exp(.241)=1.273$) 각각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감소집단보다는 유지집단에, 감소집단보다는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5배 ($\exp(-.649)=.523$), 0.5배($\exp(-.746)=.474$) 씩 높았다. 그리고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에도 감소집단보다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4배($\exp(-.904)=.405$)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수록,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유지집단보다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7배($\exp(.555)=1.742$), 4.2배($\exp(1.434) =4.195$) 높았으며, 또한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감소집단보다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0.2배($\exp(-1.397)=.247$) 더 높았다.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도 감소집단에 비해 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0.6배($\exp(-.490)=.613$) 더 높았다.

표 4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요인(준거집단 VS 비교집단)

변인	중학교 2(2차년도)			중학교 3(3차년도)			고등학교 1(4차년도)			고등학교2(5차년도)			고등학교 3(6차년도)			
	B	se	OR	B	se	OR	B	se	OR	B	se	OR	B	se	OR	
유지	성별(남)	-.183	.105	.833	-.155	.105	.856	-.110	.106	.896	-.086	.107	.918	-.061	.110	.941
	봉사활동(유)	-.050	.104	.952	-.112	.106	.894	-.052	.107	.950	-.024	.107	.976	-.046	.135	.955
	해외경험(유)	-.329	.169	.720	-.176	.185	.838	-.201	.165	.818	-.409*	.177	.664	-.115	.232	.891
VS	부모의 방임	.213*	.095	1.237	.094	.098	1.099	.271*	.115	1.311	.470***	.121	1.600	.555***	.123	1.742
	부모의 확대	-.168*	.070	.845	-.156*	.071	.855	-.136	.084	.873	-.147	.096	.864	-.190	.097	.827
증가	교우관계	.243*	.124	1.275	.595***	.131	1.814	.757***	.151	2.133	.923***	.159	2.517	1.434***	.159	4.195
	교사관계	.131	.087	1.140	.285**	.092	1.330	.203	.104	1.225	.241*	.107	1.273	.041	.102	1.042
유지	성별(남)	-.338	.216	.713	-.219	.215	.804	-.225	.214	.799	-.262	.214	.770	-.312	.215	.732
	봉사활동(유)	.025	.212	1.026	-.184	.216	.832	.161	.221	1.174	.128	.218	1.137	-.108	.272	.898
	해외경험(유)	-.344	.338	.709	-.373	.342	.689	.180	.385	1.197	.205	.439	1.228	1.183	.729	3.264
VS	부모의 방임	.239	.195	1.269	.039	.201	1.040	.236	.239	1.266	.069	.249	1.071	.262	.251	1.300
	부모의 확대	-.207	.152	.813	.088	.138	1.092	.027	.170	1.028	-.236	.198	.790	-.391	.205	.676
감소	교우관계	.453	.255	1.573	.449	.261	1.567	.044	.305	1.045	-.079	.323	.924	-.322	.320	.724
	교사관계	-.110	.174	.896	-.350	.185	.705	-.186	.215	.830	-.649**	.217	.523	-.490*	.215	.613
증가	성별(남)	-.176	.225	.839	-.134	.223	.875	-.058	.228	.943	-.150	.232	.860	-.129	.231	.879
	봉사활동(유)	.069	.221	1.072	-.066	.227	.936	.225	.234	1.252	.206	.234	1.229	-.039	.290	.962
	해외경험(유)	.002	.349	1.002	-.302	.359	.739	.340	.396	1.405	.696	.455	2.006	1.175	.749	3.239
VS	부모의 방임	.037	.193	1.038	-.030	.199	.970	.001	.232	1.001	-.370	.235	.690	-.284	.221	.753
	부모의 확대	-.038	.150	.963	.205	.139	1.227	.157	.172	1.170	-.143	.209	.866	-.122	.193	.885
감소	교우관계	.180	.246	1.197	-.190	.269	.827	-.733*	.300	.481	-.904**	.313	.405	-1.397***	.295	.247
	교사관계	-.233	.178	.792	-.522***	.175	.593	-.302	.201	.739	-.746***	.207	.474	-.327	.183	.721

*p<.05, **p<.01, ***p<.001

4. 다문화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변화양상

다문화수용성 발달양상으로 밝혀진 잠재계층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다집단 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점 변수를 제외한 가속도항(2차항)을 투입하였을 경우, 1차항과 2차항의 상관계수가 -0.848로 큰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예상되어 다집단 선형성장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박현정 외, 2015).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의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평균 초기치는 3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증가집단(2.878, $p < .001$), 감소집단(2.767, $p < .001$), 유지집단(2.276, $p < .0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증가집단은 선형변화율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0.096정도씩 공동체의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지집단은 선형변화율이 매년 평균적으로 0.054정도씩 공동체의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증가집단이 유지집단에 비해 5년간의 종단적 변화에 있어 공동체의식 증가율이 더 높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초기 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5년 동안의 공동체의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차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초기 값이 작은 경우 변화율이 크고 초기 값이 큰 경우 변화율이 작음을 보여준다. 다문화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변화양상 그래프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5
다문화수용성 잠재계층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모수 추정치

	잠재계층		
	유지집단	증가집단	감소집단
평균 초기치	2,276***	2,878***	2,767***
평균 선형변화율	0,054***	0,096***	-0,017

*** $p < .001$

그림 4의 공동체의식 변화양상에서 유지집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상승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증가집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감소집단은 초기치가 유지집단보다 높았으나 다음해부터는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다른 집단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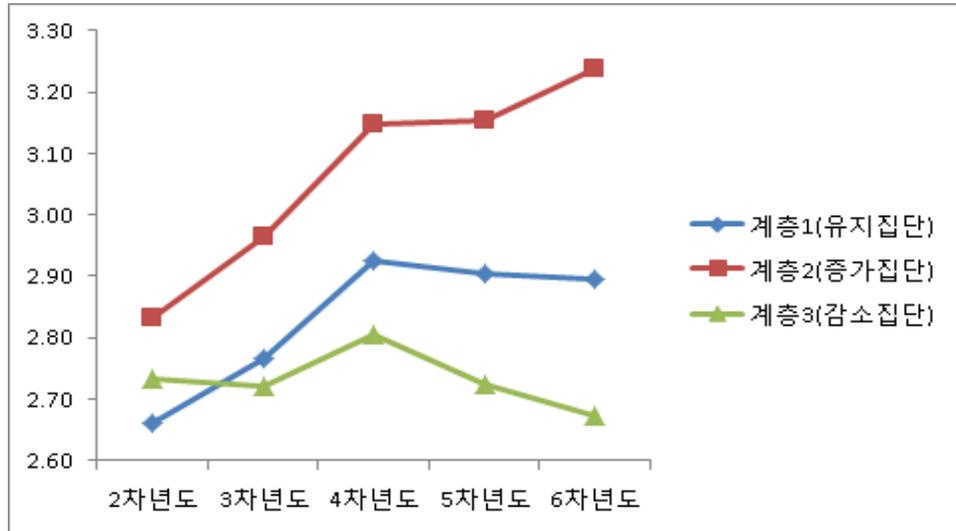


그림 4. 다문화수용성 잠재계층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

V. 논 의

2050년쯤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12%, 10%가 다문화 가정 자녀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삼식, 최효진, 박성재, 2009).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아량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 함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 동안의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발달양상에 있어서 이질적인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그 잠재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발달양상에서 도출된 잠재계층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 추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년간의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한 결과 3가지 변화양상을 보이는 잠재계층이 확인되었다. 3개의 잠재계층은 5년간 다문화수용성 값이 변화가 거의 없이 유지되는 ‘유지집단’, 매년 증가하는 ‘증가집단’, 그리고 해마다 다문화수용성이 감소하는 ‘감소집단’이다. 즉 다문화수용성은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며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라 확인된 3개의 잠재계층을 구분하는 데 있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변인으로 예측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변인인 성별과 봉사활동 유무는 계층을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높았다는 연구(김경근, 황여정, 2012; 장은화, 어주경, 2013; 최지영, 김재철, 2015)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Eyler, 2002)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대상을 분석한 것이 아니며 본 연구가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양상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였다는 점과 봉사활동 참여 유무만을 사용한 데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원인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 참여 유무와 더불어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보다 장기간에 걸친 종단연구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개인변인 중 해외방문 경험 유무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 있어서 증가집단과 유지집단을 구분하는 예측변인으로 해외방문을 경험한 학생이 증가집단보다 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체험과 경험, 즉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사회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고 보고한 Campbell(2010)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해외 방문 경험이 횡단 시점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수경(20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짧은 해외 방문 경험으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과 심도 있는 상호작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시적인 해외 방문보다는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장기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다문화수용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방문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지역을 방문하느냐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학교 시점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계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년간은 부모의 방임적 태도가 계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지 않은 경우 유지집단보다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1학년년부터 3학년 때 까지는 부모가 방임적으로 자녀를 대할 경우 유지집단보다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강영자(1998)가 중·고등학생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부모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자녀를 더 허용적이고 민주적으로 대한다고 보고한 결과에서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 양육태도에는 부모 자신의 가치관, 신념, 정서 등이 반영되어 있어(양문현, 1983) 자녀는 이를 지각하고 성격 및 행동특성으로 반응을 나타낸다(장인실, 이혜진, 2010).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해가며 부모 양육태도에 따라 다른 경향성과 문화양식을 형성하게 되므로(박지현, 2014),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가 사회 및 문화를 바라보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을 통해 양육태도를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 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존중과 배려의 사회 분위기 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른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5년간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므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과 학생들 개인의 심리적 성장 도모를 위한 효율적인 개입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변인에서는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었으며, 특히 교우관계는 5년간에 걸쳐 계층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유지집단보다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중학교 2학년 때는 1.3배에서 해마다 점차 증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4.2배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3년에 걸쳐서도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감소집단보다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또 다른 변인인 교사와의 관계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

학년 시점에서 계층구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중학교 3학년 때에는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유지집단이나 감소집단보다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감소집단보다 유지집단에, 그리고 유지집단보다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유지집단이나 감소집단보다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우,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고 보고한 서봉연 외(201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김경근과 황여정(2012), 최지영과 김재철(2015)의 연구에도 교우관계는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문화수용성은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과 조화롭게 관계를 맺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또래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잘 맺는 학생일수록 다문화수용성도 높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여러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또래와 관계를 맺는 능력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친구와 친한 관계를 맺거나,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교성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친밀하게 친구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단상담, 역할놀이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문화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을 멘토-멘티로 짝지어 주거나, 또래 상담반 등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교류할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교사의 태도와 가치관을 학생이 잘 수용하게 되므로, 교사와 학생의 원만한 관계가 우선되고, 교사부터 다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고 다문화수용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수용성 발달양상으로 밝혀진 잠재계층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증가집단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수용성이 종단적으로 증가하는 집단이 공동체의식도 종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지집단은 초기치는 감소집단보다 낮았으나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감소집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구정화(2015)의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5학년에 비해 6학년때 감소하였고 다문화수용성 또한 6학년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기간 동안 선형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김성훈, 2015; 문수경, 2015). 공동체의식의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모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적으로 매년 증가하지만, 시작점과 변화 정도에서 개인과 환경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양상에 따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차년도에는 두 번째로 높은 공동체의식을 보이다가 고등학교 1학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강하는 감소집단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들 집단에 맞춘 교육이나 프로그램진행이 보다 절실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 집단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진행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공교육에서 다뤄야 할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을 위한 교육에는 소홀한 실정이다(김현주, 2015). 특히,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은 종단적으로 비슷한 발달양상을 보이므로 다수자와 소수자가 조화를 이루는 다문화사회를 위해 근본적인 관점에서 배려심, 이타심, 공감과 같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의 강화를 도와주는 교육(김경근, 황여정, 2012)이 함께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태도는 비단 수업을 통해서만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 영향을 받고 배우게 되는 것이므로(최만식, 2013), 청소년들에게 있어 배움과 생활의 장인 학교 안에서 교사 및 교육 전문가들이 다문화적 가치와 태도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한 심각한 경쟁체제 속에서 인지적 평가만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현실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인지적 역량만을 강조하고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과 같은 인성적 측면을 간과하게 되면 이는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 및 발달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이수경, 2015).

다문화수용성은 미래의 건강한 시민을 배양하는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 요소이므로, 단순히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문화를 소개하는데 그치는 미시적 교육이 아니라, 타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수용력을 키울 수 있게 일관되고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정착시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시민성과 공동체 발전에 대해 기여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의 횡단적 양상만을 검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종단적 발달양상을 추정하였고, 다문화수용성 발달 양상에 따른 이질적인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요인을 시점별로 검증하였다. 나아가 다문화수용성의 이질적인 잠재계층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 좀 더 풍부하고 역동적인 결과를 산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강영자 (1998). 중·고등학생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비교연구. **생활과학연구**, 4, 3-11.
- 곽준혁 (2007).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15(2), 23-42.
- 구정화 (2015).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초등학교 5, 6 학년의 차이 연구. **시민교육연구**, 47(1), 1-24.
- 김경근, 황여정 (2012). 초중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39(1), 87-117.
- 김미진 (2010).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청구논문.
- 김성훈 (2015). 청소년의 봉사 활동과 공동체의식. **한국청소년연구**, 26(2), 237-259.
- 김종학, 최보영 (2014). 다문화연구학교에서와 일반학교에서의 초등학생 다문화인식 비교. **청소년학연구**, 21(5), 57-84.
- 김현주 (2015).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식의 현황과 문제점-다문화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실과교육연구**, 21(1), 93-109.
- 문수경 (2015). **청소년 봉사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선보영, 이명진 (2012).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명희 (2013). **예비교사의 다문화역량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희 (2014).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종단연구. **다문화와 인간**, 3(2), 99-131.
- 박지현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인권감수성이 다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 아시아교육연구**, 16(4), 105-127.
- 박혜숙, 원미순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25.
- 서봉언 (2015). 한국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 상호 인과관계. **청소년 시설환경**, 13(2), 111-120.
- 서봉언, 조현미, 김민영 (2015).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 관련 요인 탐색. **다문화콘텐츠 연구**, 19, 179-207.
- 설은정, 정옥분 (2012).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 발달연구**, 19(2), 91-114.
- 송미영 (2010). 한국의 다문화의식: 다문화수용성의 원인 분석. **민족연구**, 41, 74-97.
- 심우엽 (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초등교육연구**, 23(4), 43-63.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양문현 (1983).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6. 03).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 류영아 (2007). **포래문화가 중학생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징적 상호 작용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상우, 김상돈 (2010). 사회병리적 Agenda: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 윤인진, 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 연구**, 23(1), 143-192.
- 이삼식, 최효진, 박성제 (2009). **다문화 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2009-34-1).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 이소연 (2016). **청소년의 사회적관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수용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경 (2015).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에서 나타나는 종단변화와 그 영향요인. **청소년 학연구**, 22(10), 27-48.
- 이자형, 김경근 (2013).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 53-77.

- 이자형, 박현준, 김경근 (2014).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한국교육**, 41(3), 5-34.
- 이정우 (2008). 다양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태도. **사회과교육**, 47(3), 297-320.
- 임성애, 이은주 (2016).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기결정성동기와 생애목표의 이질적 효과 및 예측요인 검증. **교육심리연구**, 30(1), 85-110.
- 장은화, 어주경 (2013). 아동의 자아개념 및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3), 289-305.
- 장인실, 이혜진 (2010). 초등학교의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다문화교육연구**, 3(1), 55-87.
- 전영은, 김영순 (2013). 문화예술 체험활동 ‘국경없는마을 RPG’ 참여 고등학생의 다문화경험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8(2), 55-77.
- 조아미, 신태수 (201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과 특성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3(2), 161-184.
- 주은지 (2010).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125-142.
- 최만식 (2013). **교원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영, 김재철 (2015). 초등학교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심리, 사회적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2(2), 389-411.
- 하경애 (2010). **초등학교의 다문화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2).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Campbell, D. E. (2010). *Choosing democracy: A practical guide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 Bacon.
- Chen, G. M., & Starosta, W. J. (Eds.). (2000). *Communication and global society*. New York: Peter Lang.
- Ellison, C. G., & Powers, D. A. (1994). The contact hypothesis and racial

- attitudes among Black Americans. *Social Science Quarterly*, 75(2), 385-400.
- Eyler, Janet. (2002). Reflection: linking service and learning—linking students and communit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8(3), 517-534.
- Giles, M. B., & Sherman, T. M. (1982). Measurement of multicultural attitudes of teacher traine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5(4), 204-209.
- Lerner, R. M. (1991). Changing organism-context relations as the basic process of development: A developmental contextu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991(27), 27-32.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Nelis, S. M., & Rae, G. (2009). Brief report: Peer attach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2(2), 443-447.
- Reid, J. B., & Patterson, G. R. (1989).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ur pattern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2), 107-119.
- Sandal, Michael. (2008). *Communitarianism and Public Nature*. Seoul: Philosophy & Reality.

ABSTRACT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e changing community spirit as determined by means of growth mixture modeling

Baek, Seunghiey* · Chung, Hyewon**

The goal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document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e changes of relevant community spirit in adolescence. In order to do this, data used in this study was taken from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tudy(KCYPS)”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1,886 (924 male students and 962 female students) responses were gathered from freshman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five years longitudinal surveys, including the youth panel group of the 2nd year through to the 6th yea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fairly coherent and predictable picture emerged of 3 groups; a multicultural acceptance increasing group, a maintaining group, and a decreasing group. As expected, the pattern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ommunity spirit changed over the years, and distinct trajectorie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were revealed during the study period. Seco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rajectorie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were significant and powerful predictors of latent class differences in overseas visiting experiences, parent's rearing attitudes, peer relations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The increasing group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initial average. Additionally, amongst both the increasing group, and the maintaining group, the rate of change was seen to increase significant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growth mixture modeling, growth model with known class, multicultural acceptance, community spirit

투고일: 2016. 12. 5, 심사일: 2017. 1. 23, 심사완료일: 2017. 2. 14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chw7@cnu.ac.kr

<부록 1>
5시점에 대한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②	.398***														
③	.369***	.425***													
④	.339***	.413***	.518***												
⑤	.305***	.309***	.423***	.508***											
⑥	.467***	.232***	.177***	.148***	.142***										
⑦	.210***	.486***	.166***	.160***	.151***	.370***									
⑧	.243***	.282***	.414***	.241***	.203***	.349***	.373***								
⑨	.240***	.264***	.217***	.398***	.241***	.339***	.377***	.455***							
⑩	.196***	.233***	.167***	.227***	.400***	.301***	.366***	.429***	.487***						
⑪	.211***	.148***	.118***	.128***	.067***	.258***	.203***	.190***	.190***	.164***					
⑫	.108***	.226***	.104***	.113***	.069***	.115***	.251***	.178***	.138***	.162***	.406***				
⑬	.133***	.139***	.204***	.152***	.135***	.167***	.184***	.273***	.218***	.220***	.352***	.420***			
⑭	.104***	.154***	.134***	.196***	.176***	.097***	.169***	.181***	.267***	.239***	.343***	.423***	.468***		
⑮	.097***	.114***	.098***	.108***	.226***	.129***	.170***	.208***	.204***	.353***	.325***	.367***	.419***	.499***	
⑯	.033	-.025	-.037	-0.035	-.039	.021	.007	-.042	-.026	-.078**	-.156***	-.166***	-.128***	-.177***	-.191***
⑰	-.019	-.046*	-.049*	-.046*	-.055*	-.033	-.029	-.083***	-.076**	-.100***	-.189***	-.202***	-.186***	-.203***	-.222***
⑱	-.062**	-.028	-.085***	-.066**	-.063*	-.051*	-.005	-.096***	-.079**	-.078**	-.105***	-.175***	-.242***	-.236***	-.213***
⑲	-.027	-.042	-.057*	-.084***	-.085***	-.034	-.035	-.104***	-.092***	-.108***	-.181***	-.217***	-.226***	-.328***	-.282***
⑳	-.049*	-.003	-.073**	-.086***	-.108***	-.018	-.042	-.085***	-.100***	-.119***	-.145***	-.166***	-.209***	-.230***	-.357***
㉑	.259***	.147***	.086***	.105***	.049*	.331***	.253***	.234***	.233***	.185***	.276***	.204***	.185***	.182***	.159***
㉒	.189***	.255***	.126***	.148***	.142***	.232***	.307***	.251***	.264***	.242***	.210***	.283***	.203***	.228***	.186***
㉓	.142***	.182***	.271***	.185***	.163***	.151***	.208***	.408***	.272***	.239***	.187***	.219***	.388***	.270***	.217***
㉔	.143***	.182***	.174***	.331***	.189***	.171***	.234***	.314***	.438***	.264***	.190***	.231***	.281***	.383***	.269***
㉕	.100***	.129***	.168***	.203***	.319***	.137***	.167***	.238***	.271***	.442***	.164***	.182***	.224***	.271***	.377***
㉖	.277***	.164***	.107***	.106***	.084***	.380***	.244***	.192***	.196***	.155***	.255***	.163***	.157***	.158***	.130***
㉗	.202***	.217***	.144***	.138***	.135***	.241***	.338***	.247***	.251***	.204***	.185***	.212***	.179***	.204***	.174***
㉘	.180***	.167***	.245***	.165***	.118***	.191***	.218***	.343***	.237***	.190***	.159***	.200***	.300***	.188***	.174***
㉙	.150***	.143***	.171***	.227***	.171***	.174***	.217***	.236***	.376***	.268***	.137***	.175***	.213***	.304***	.225***
㉚	.121***	.152***	.109***	.144***	.198***	.163***	.203***	.176***	.242***	.362***	.110***	.116***	.162***	.191***	.265***
M	2.791	2.926	3.045	3.125	3.155	2.716	2.824	2.987	2.970	2.988	3.188	3.223	3.131	3.275	3.164
SD	.616	.606	.566	.554	.556	.595	.590	.500	.497	.500	.594	.572	.510	.504	.515
왜도	-.089	-.034	.143	.090	.041	-.129	-.136	.081	.044	.036	-.555	-.408	-.022	-.033	-.146
첨도	.441	.197	-.294	-.416	-.482	.515	.549	.528	.617	.812	.750	.422	.311	-.567	.512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7	.374***														
18	.343***	.425***													
19	.346***	.409***	.474***												
20	.263***	.330***	.407***	.494***											
21	-.066**	-.085***	-.094***	-.090***	-.078**										
22	-.041	-.112***	-.098***	-.105***	-.100***	.393***									
23	-.047*	-.105***	-.156***	-.127***	-.147***	.317***	.372***								
24	-.033	-.092***	-.116***	-.174***	-.145***	.282***	.370***	.506***							
25	-.038	-.081***	-.091***	-.152***	-.207***	.270***	.277***	.428***	.462***						
26	-.009	-.031	-.024	-.013	-.025	.400***	.186***	.199***	.174***	.177***					
27	.013	-.032	-.029	-.019	-.058*	.221***	.378***	.237***	.245***	.188***	.384***				
28	-.006	-.048*	-.057*	-.052*	-.084***	.194***	.162***	.458***	.288***	.249***	.313***	.304***			
29	-.011	-.057*	-.047*	-.099***	-.096***	.178***	.188***	.297***	.450***	.299***	.264***	.300***	.426***		
30	-.007	-.037	-.036	-.069**	-.082***	.159***	.138***	.249***	.262***	.443***	.268***	.245***	.355***	.447***	
M	1,689	1,692	1,553	1,457	1,495	3,063	3,122	3,138	3,152	3,140	2,809	2,891	2,890	2,904	2,962
SD	.760	.767	.648	.602	.622	.473	.451	.414	.394	.413	.662	.620	.573	.564	.590
왜도	1,104	1,107	1,177	1,337	1,259	-.233	-.160	.141	.152	.190	-.162	-.112	.050	-.029	-.274
첨도	.613	.622	1,055	1,459	1,344	.905	.911	.248	.645	.703	-.109	.059	-.006	.104	.472

①다문화수용성2차 ②다문화수용성3차 ③다문화수용성4차 ④다문화수용성5차 ⑤다문화수용성6차 ⑥공동체의식2차 ⑦공동체의식3차 ⑧공동체의식4차 ⑨공동체의식5차
 ⑩공동체의식6차 ⑪부모방입2차 ⑫부모방입3차 ⑬부모방입4차 ⑭부모방입5차 ⑮부모방입6차 ⑯부모학대2차 ⑰부모학대3차 ⑱부모학대4차 ⑲부모학대5차 ⑳부모학대6차
 ㉑교우관계2차 ㉒교우관계3차 ㉓교우관계4차 ㉔교우관계5차 ㉕교우관계6차 ㉖교사관계2차 ㉗교사관계3차 ㉘교사관계4차 ㉙교사관계5차 ㉚교사관계6차

* $p < .05$, ** $p < .01$, *** $p < .001$